



이주민 선교 "연합" 을 말하다

**한국 선교계 연합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
이주민 선교 시대 이주민 선교 연합도 필요해
2010년은 이주민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기독교와 관련하여, 특히 선교계에서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연합'이다. 1974년 로잔대회에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틀 목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의 입장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단체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대체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면서 해외선교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서서교회 중심적 선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여전히 세계교회협의회 정치,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

는 급진주의적 신학이며, 복음주의 선교와 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말하는 주체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선교계도 이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교단 선교부 주도의 선교 파송과 사역 전개, 지역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하는 사역에서 요구되는 선교 결과물들도 선교의 수용과 연합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비교와 경쟁으로 이어지고, 갈등과 반목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선교적 소양의 결여도 선

교 연합의 길을 걷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선교계의 '연합'은 선교 그 자체와 더불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시대에 즈음하여, 이주민 선교의 '연합'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에 대하여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88년 석탄공사의 인력 수입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민 출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창기인 2000년까지 모든 이주민은 외국인 노동자로 불렸으며, 재외동포인 조선족의 이슈와 동일시하여 선교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 관련 문제에만 몰두했고, 선교계는 '가는 선교'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을 통해 '오는 선교'를 애써 수용하지 않았다.

교계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이주민 선교 관계자들을 선교사로 인정해야 하는지, 복음이 먼저인지 구제가 먼저인지 하는 설왕설래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후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주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이주민들은 근로자(블루, 화이트), 유학생, 국제결혼자, 난민 등 신분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문화'라는 사회학적인 수식어로 불렸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이주민들에게 적용하려고 애썼지만, 정책 부재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고민이 많았다. 선교계는 이주민을 통한 '오는 선교'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준비가 부족한 채 검증 안된 행보를 보였다. 교계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행하기 시작했지만, 교회 형

편과 상황에 맞춘 '묻지마'식 이주민 사역을 행했다.

그럼에도 2010년은 이주민 선교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내 지역교회가 이주민들을 정주(다문화 가정, 난민)와 비정주(근로자, 유학생)로 구별하여 다문화 목회와 다문화 선교로 나누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민 선교는 기회이자, 한국교회가 역선교 당할 수 있는 위기일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3차 로잔위원회에서는 이주민(디아스포라) 선교를 중요하게 여겨 디아스포라(이주민) 분과를 만들고,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제정하여 각 신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결의하였다. 무엇보다도 관련 단체와 사역자들의 연합운동이 지역별로, 국적별로, 언어권별로, 신분별로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2-13 페이지에서 계속

새중앙교회 외국인선교회

교회 이주민 선교의 선구적 모델 제시하다



**1990년 초 시작된 이주 노동자 선교
2021년 현재 8개 외국인선교회 사역
교회 전체 비전과 사역 방향 따르면서
동시에 독창적인 예배와 사역 펼쳐...**

새 중앙교회(황덕영 담임 목사)는 해외선교와 지역사회 전도에 집중하고 이를 실행하는 선교적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새중앙교회 사역에서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바로 먼 타국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가족이 된 외국인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인근 안양 공장지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1990년대 초 새중앙교회는 이주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교적 비전을 실천하여 30여 년간 지역교회 이주민 선교의 선구적 모델을 보여주었다.

유미현 새중앙교회 선교부 및 글로벌봉사훈련원 담당 목사는 새중앙교회 이주민 사역이 일찍이 시작된 데 대해 “선교의 효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화 하여, 자신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사역의 열매로 맺어진 이주민들을 다시 역파송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새중앙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과거 ‘외국인 근로자 예배’에서 2021년 현재 몽골, 베트남, 북한, 영어권,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중국동포 등 8개 외국인선교회로 발전했다. 각 선교회는 현지인 목사, 전도사들을 리더로 세우고, 예배와 전도, 제자훈련, 수련회 등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있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 평신도로 이뤄진 70여 명의 한국인 스태프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 설립된 일본선교회의 경우 새중앙교회 내 전문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 이주민선교학 교 훈련생들이 일본에 아웃리치를 다녀와 기도 모임을 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평신도들이 일본을 품고 기도하다

가 자연스럽게 국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선교회가 생겨난 것이다. 주변에 일본인들이 거의 살지 않고 일본인 성도 수도 많지 않지만, 새가족반과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까지 마친 일본인 성도가 나오는 등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유미현 목사는 “최근 4~5년 동안 외국인선교회들은 새중앙교회의 새가족반 교재, 성장반 교재를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양육, 제자훈련 사역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100개 북한교회, 1,000개 세계교회, 1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새중앙교회의 비전과 정신, 목회 철학, 사역 방향성과 맞물리면서도 각자 독특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독창적으로 예배하고 사역하는 시스템이 온전히 정착했다”고 말했다. 교재는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6개 언어로 번역됐다.

외국인선교회들은 새중앙교회의 이웃사랑나눔잔치, 새생명축제, 전도·아웃리치 등 큰 행사 때도 함께 움직인다. 코로나 상황에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취약계층과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재능기부, 사랑 나눔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유미현 목사는 새중앙교회가 오랜 기간 이주민 선교를 꾸준히 전문적으로 해 올

수 있었던 비결로 ‘소통’과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선교비전’을 꼽았다. 유 목사는 “지류들이 모여 한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이 되는 것처럼, 각 외국인선교회가 특징과 상황이 있음을 존중하면서 전체 흐름을 같이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소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선교훈련 강의에서도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축도에서도 항상 선교적 비전을 나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주민 선교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매년 1월 첫 주일인 새중앙교회 선교주일에는 8개 외국인선교회 교역자와 스태프들이 헌금특송을 한다. 이 예배에서 전 성도가 작성하는 선교헌신, 선교헌금, 선교훈련 작성서의 선택란에는 외국인선교회도 포함돼 있어, 매년 이주민 선교 관심자들을 팔로우업 하고 있다.

유미현 목사는 이주민 선교를 꿈꾸는 교회라면 교회의 선교적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담임목사님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 이주민 선교 교역자들이 중요하다. 사역의 도구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람”이라며 “한국인이든 현지인이든 이주민 선교 교역자를 잘 선별하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이들

이 담임목사님의 선교적 마인드와 연결되고 교회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중앙교회의 8개 외국인선교회는 다음과 같다.



◆**몽골선교회(델레게흐 전도사)**=2003년에 설립된 몽골선교회는 2021년 현재 20여 명(현지인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몽골 현지인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이주노동자, 유학생)이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 교역자와 스태프들이 전심으로 전도하며 섬기고 있다.



◆**베트남선교회(응웬시푸 목사)**=베트남선교회는 1996년 외국인 근로자 예배 안에서 베트남 공동체로 시작, 1998년 베트남선교회로 설립



외국인선교회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가 진행되는 모습(2018년) ©새중앙교회 외국인선교회

되었다. 2021년 현재 50여 명(현지인 40명)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베트남선교회는 체계적인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선교회로서,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역파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도의 대다수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어 다문화 가정의 회복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말씀과 다양한 섬김 및 베트남 어학당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거리가 멀어 교회로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구역별 거점 예배와 전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선교회(유혜란 목사)=2010년 9월 탈북인 18명과 한국인 스태프 23명이 모여 시작된 북한선교회는 탈북인의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을 통한 북한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1년

현재 40여 명(탈북인 2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북한선교회는 탈북인을 섬기는 것과 함께 북한선교에 동원을 일으키는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북한체제로 인한 트라우마인 탈북인들의 거짓 자기(false self)와 영적 결핍을 '소울 빌더'(Soul builder)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있다.



◆영어권선교회(크리스토퍼 리 전도사)=1995년 영어권 이주민과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영어권 이주민을 중심으로 장년부와 어린이부 2개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북미, 아프리카, 인도 등 영어권 국가 출신 현지인, 필리핀계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이 함께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 성도들 간 교제를 통해 복음이 세계 속

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되는지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인도네시아선교회(요하네스 목사)=1997년 중동선교회로 시작해 2006년 인도네시아선교회로 예배를 드렸고, 4년 후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선교회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 뒤 2010년 6월 요하네스 목사를 청빙하여, 2021년 현재 40여 명(현지인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세계를 여는 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가 사는 나라인 만큼, 선교회에서는 현지인 성도들을 신실한 제자로 훈련하여 역파송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전역을 복음화하는데 더욱 많은 기도와 힘을 쏟고 있다. 주일예배, 기도 모임, 셀 그룹, 제자 훈련과 사역에

대한 여러 훈련을 통해 리더들과 성도들의 양육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선교회(남인 목사)=2016년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로, 디아스포라인 일본인 주재원들과 유학생, 국제결혼 커플 등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1년 현재 20여 명(현지인 4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하고 있으며 노방전도 및 일본어 성경 통독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중앙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제자 훈련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국선교회(위다니엘 목사)=1995년 중국 한족과 중국동포가 함께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고, 1997년 중국동포선교회가 따로 분리되면서 한족으로만 이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2021년 현재 80여 명(현지인 7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위다니엘 목사가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비전 50.50.50'(50개 구역예배·중국 내 50개 지교회·50명의 선교사 역파송)을 이루기 위해 양육과 훈련, 역파송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동포선교회(김옥환



목사)=1997년 중국선교회와 분리되면서 설립된 중국동포선교회는 2021년 현재 60여 명(현지인 5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김옥환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동포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기에 한국인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동포선교회는 한(1)사람이 다섯(5)명의 태신자를 품고 세(3)명을 정착시키기 위한 '153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운영하여 성도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훈련, 양육, 전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동포선교회는 역파송에 초점을 두어 자체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선교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선교훈련을 받았다.



선교부 패밀리데이 행사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여름 집중훈련 7/12(월) - 7/16(금) 4박 5일동안 진행

가을학기 개강 9/11(토) - 9/17(금) 각 요일반 순차적 개강, 12주 진행

훈련비 100,000원 신청 www.PSP.or.kr 문의 02-889-6400

성경적관점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적관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문화적관점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전략적관점 미복음화된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주관 미션파트너스 www.missionpartners.kr 02-889-6400 info@missionpartners.kr

나의 디아스포라 여정에 대한 회고



T. V. 토마스(Thomas) 박사

로잔 글로벌디아스포라네트워크(GDN) 회장
캐나다 전도 및 세계선교센터 소장

2020년 전 세계 인구의 3.5% 글로벌 이주민 이주민 늘면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기회도 증가

집은 없습니다.

3.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동은 남쪽과 동쪽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만연한 세계화와 함께 초국가적 이주가 모든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모든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주 및 임무

글로벌 이민은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규모의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생지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살고 일하는 민족 그룹입니다. 2018년 1월, 아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이민을 긍정적인 글로벌 현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수용해야 하는 네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1. 더 많은 선교지가 지역 교회에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이민자, 이주 노동자 및 유학생을 포함한 디아스포라 민족이 우리나라, 도시, 지역 사회 및 이웃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권이나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비

용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디아스포라 민족은 기독교 사역자들의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된 국가 출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종족 그룹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더 많은 교회가 타문화 선교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모의 교회라도 나가서 디아스포라 민족과 함께 타문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타문화적 감수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이웃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더 많은 교회가 디아스포라 펠로우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디아스포라 민족 중 일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들은 민족적 또는 언어별 친교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이주민 기독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자신들과 같은 동족에게 다가가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4. 더 많은 교회가 선교를 위해 더 많은 기독교 일꾼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타문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선교 동원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회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본국의 선교 활동에 동원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동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자원 나눔에서도 상호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디아스포라네트워크(GDN)의 역할

로잔운동은 2010년 남아

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 이후, 2010년 글로벌디아스포라 네트워크(GDN)의 출범을 도왔으며,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GDN의 비전은 네트워킹, 대화, 상담, 콘퍼런스 및 출판물을 통해 글로벌 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민 및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선교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본지 24면 전면광고 참고

2021 디아스포라 서밋 초청

GDN은 오는 8월 25일 로잔 글로벌 디아스포라 서밋(Lausanne Global Diaspora Summit) 2021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팬데믹, 이주민 그리고 선교’입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글로벌 모임으로, 3시간 실시간 토론을 줌(ZOOM)으로 진행합니다. 팬데믹이 이주와 디아스포라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이 사역에 적응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하고 글로벌 학습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종으로는 인도인, 문화적으로는 말레이시아인이며, 국적으로는 캐나다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남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어느 이주민 근로자의 아들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영국회사를 따라 말레이시아 본토로 이주했고, 이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960년대 중반 인도 대학으로 이주하여 유학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1970년대 초,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북미로 이주했습니다.

글로벌 이주 동향

지난 50년 동안 저는 ‘이민 이야기’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띄는 세 가지 트렌드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다양한 이유로 더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합니다. 대다수는 정당한 이유로 이주를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생존이나 발전을 위해, 또는 고급 교육 수준을 추구하기 위해 ‘더 푸른 목초지’로 이주하

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비극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폭력, 전쟁, 정치적 혼란, 종교적 박해가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국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 홍수, 지진, 기근,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2. 더 많은 사람이 이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른 운송 수단으로 인해 초국적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사회도 이에 열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외국 태생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이주에 대한 전 세계 통계에서 분명합니다.

국제 이주민은 1960년 7900만, 1975년 8400만, 1985년 1억 500만, 1990년 1억 2000만, 2000년 1억 5000만, 2015년 2억 4400만, 2020년 2억 720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1960년 국제 이주민은 세계 인구의 2.6%를 구성했지만, 2020년에는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둔화할 조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 11월 개최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구성모 교수
AWMJ 총괄본부장

200개국 세계기독교지도자대회 행사,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되나?

- ✓ 코로나 현실로 3일간 매일 3시간 비대면 진행
- ✓ 지도자부터 신앙의 순기능 회복과 실천 운동
- ✓ 국가별 국내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참여 기대
- ✓ 한국 및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 대면 기회



신화석 목사의 AWMJ선교회 사역 모습 © AWMJ선교회

200개국 기독교지도자대회 (200 Nations Leader's Missions Congress I)가 2021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안디옥에서 땅끝까지'라는 표어로 개최된다. 본 대회는 사단법인 AWMJ선교회와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공동 주최하고, 로잔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대표적 기독교 기관들의 협력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을 감안하여 유튜브와 줌을 활용하여 매일 3시간씩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본 대회는 전 세계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차를 두고 열린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인 신앙의 순기능 회복과 실천을 목적으로 성경의 삶과 실천, 기도의 규칙적 실행,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전도가 실현되어 땅끝까지 확장되는 운동을 지도자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핵

심이 있다. 대회 준비본부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을 파악하고,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는 스스로 신앙의 순기능 회복과 실천 운동을 시작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운동

으로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땅끝까지 이 운동이 확장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대회 참가자들은 세계의 의미 있는 질문에 답을 찾을 것이다. 첫째,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지키고 가르치고 있는가? 둘째, 당신은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가? 셋째, 당신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매일 전도하며 살고 있는가, 특히 당신의 가족들이 신앙 위에 바로서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상을 돌아보고, 다양한 실천자들의 고

백과 사례를 공유하고 응답하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이 건강하게 작동돼 전세계에서 신앙의 율동이 다시 발흥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사실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는 몸부림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더 절실하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온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각 개인이 이주한 표면적인 동기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면적인 비밀이 더 중요하다. 성경과 교회를 살펴보면, 사람의 이동은 언제든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다양한 거주 형태로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는 이주민에게도 중요하다. 특히 각 이주민 국가별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순결한 기독교 모습을 찾고, 한국 내 커뮤니티는 물론 송출한 본국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공동체와도 관계가 형성되어 기독교 생명 운동이 파도치는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200 NATIONS LEADERS' MISSIONS CONGRESS I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대회

일시
2021.11.2(화) - 4(목)

11.2(화) | 11.3(수) | 11.4(목)

성경 | 기도 | 자녀

계신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행 13:1-3, 막 16:15)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를 넘어 생방송
매일 3시간, 3일간의 온라인 진행
기독교 신앙의 본질 회복과 실천

1차 등록 | 1인당 10,000원 (2021. 8. 31 까지)
2차 등록 | 1인당 15,000원 (2021. 9. 1 ~ 30)
3차 등록 | 1인당 20,000원 (2021. 10. 1 ~ 31)

등록링크: <http://bit.ly/200awmj>

송금계좌 : 1005-204-166902(우리은행) (사)에이더블유엠제이선교회

주최 AWMJ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현한나 목사
꿈의교회 영어예배부 담당

“지금은 이주민들과 함께

“다문화 사역은 단지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는 공동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가는 사역이다. 따라서 이 사역은 온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만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과 온 교회의 협력은 필수다.”

일 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파트타임, 풀타임 가릴 것 없이 내가 족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게 다문화 사역임을 요즘 필자는 더욱 느끼고 있다. 꿈의교회 영어예배는 생겨난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에 코로나로 많은 외국인이 귀국하게 되어, 작년 12월에 새로 부임해 사역을 맡고 보니 리더들만 겨우 10명 남짓 남아 있었다.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 혼자 영상을 녹화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지나,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좌석의 20%는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함께 기도하면서 외국인들을 섬기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필자는 외국인들이 무료로 찾아가는 교회 근처 안산 빈센트병원에 통역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다마리아 수녀님과 김문영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 중에 외진을 나오시던 선생님들의 발길이 모두 끊어졌지만, 김문영 선생님만은 병원을 지키고 계셨다. 김 선생님은 미국에서 수십 년을 내과 의사로 일하시다가 2018년부터 한국에 정착하셨다. 그리고 빈센트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사실을 알고 4년째 이 병원으로 진료를 나오신다.

통역 봉사가 계기가 되어 G1 비자인 난민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 병원을 소개해주고, 급하면 진료 시간이 아닐 때도 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자매가 담낭 수술을 하면서 안산 단원병원과도 연결되어 좋은 만남과 인연들이 생겨났고,

희망마을센터의 정연주 선생님을 통해 안산의 깨어진 다문화 가족들이나 임신부들과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꿈의교회 다문화 사역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다. 교회 옆에서 운동하다가 전도되어 나오게 된 인도인 모니카 가정도 있고, 안산역에서 전도지를 받아 여동생까지 데리고 나오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온 마낭가 식구도 있고, 부인은 페루 사람이며 남편은 이집트 사람인 가정도 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온 교회의 후원과 기도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친 중국인 자매 리화를 비롯해서 조선족 식구들도 다문화 예배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 마디로 ‘샬러드 볼’처럼 어우러져 있지만 아무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의 공용어인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론 한국인들도 멤버 가운데 과반수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캐나다나 호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생활하고 돌아와 한국 단일 문화권과 예배에 정착을 못하다가 영어예배가 가진 문화적, 언어적 개방성 때문에 정착한 이들이 많다. 영어나 다문화 예배가 좋아서 공동체에 속하게 된 이들도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이기보다는 이중 문화권에 익숙하고,



영어예배부 사역 모습 ©꿈의교회 영어예배부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하여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최근에는 중국어 성경공부 과정도 생겨났고, 주로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하던 다문화 가족 식구들이 이제 제법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고부터는 중국어, 아랍어, 불어까지 사용한다. 이 때문에 구글이나 파파고 등의 번역기를 써가며 서로에게 편한 언어로 다양하게 의사소통하는 일에 점차 익숙해 지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 사역을 맡으면서, 사실 중동이나 호주에서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 난민 정착 사역과 선교 활동을 하던 것을 국내로 옮겨와서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예전에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아랍교회와 협력하고 선교단체와 동역하던 사역이었다면, 지금은 다문화 공동체를 직접 담당해서 이끌기 때문에 사역의 폭이 넓고, 잘 훈련된 리더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갖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교제와 예배, 구제와 교육 등 다방면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무겁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자신보다 서로의 필요에 더 민감하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기만 하다.

다문화 사역은 단지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는 공동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가는 사역이다. 따라서 이 사역은 온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만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 곧 장기적인 비전과 온 교회의 협력이 필수다.

다문화 사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 병원 통역이나 임신 진찰, 수술과 의료 진찰을 연결해주고, 사회사업부와 교회가 협력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부터, 비자나 여권과 관련되어 급한 문서 번역을 돕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 한국어 교육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역을 할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을 만나서 등록 및 신고하는 절차를 돕기도 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신해 내국인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사역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에는 외국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음식을 타와서

선교적 교회 실천해야 하는 시대”



영어예배부 사역 모습



영어예배부 사역 모습



영어예배부 사역 모습

나누어 줄 한국인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급하면 병원에 신고 가야 하므로 차량이 있는 어느 교인이라도 다문화 사역에 동원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 열 명 남짓 되던 리

더가 있었다면, 2021년 초반을 기를 시작해서 올해 중반을 넘어 6월이 되면서, 꿈의교회 전체 식구에게 다문화 사역을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번에 중국인 자매의 수술과 입원은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이 온 교회의 어려움이 되어 함께 돕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짧은 기간에 급히 필요했던 수술비가 교회 여러 부서에 전해져 곳곳에서 재정을 보내오면서 영어예배부만으로는 해낼 수 없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는 더 큰 그림을 함께 맞보는 기회였다.

꿈의교회 영어예배는 안산에 있는 8~9만 명에 이르는 110개국을 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 10년 전 작은 지하 예배실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교국 임원들과 전도팀(DMT)들이 함께 도우면서 외국인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 40여 명이 넘어가고 있다. 외국인 디아스포라에게(To Diaspora) 한국인들이 찾아가던 10년 사역의 열매로, 이제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색깔과 디

아스포라를 넘어(Beyond), 온갖 국적과 문화를 가진 디아스포라와 함께(With) 사역해 가는 미래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 교회가 가진 전통적인 내국인 중심의 동질 집단 성장 사역(HUP, Homogeneous Unit Principle)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명령이 오늘날 '땅끝부터 찾아온 미전도 종족들을 품는' 선교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외국인이 내 이웃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내 지역 주민으로 찾아와 '함께 선교적 교회'를 실천해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문화 예배부가 디아스포라들의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이주자와 난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은 지역교회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목회적 요청을 하고 있다.

곧 자신의 흠그라운드에서 디아스포라적 교회와 다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소명을 발견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스스로 '선교적 교회'라 말하고 있지만, 지역의 다문화 가족들과 외국인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닫혀있는 한국인 교회들은 목회적 방향성과 교회의 존재적 이유를 재조명하고, 공동체의 성격을 바꾸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 디아스포라적 교회의 사역은 한 부서나 한 지역교회의 사역으로 마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순례자, 곧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가진 모든 지역교회가 지역과 도시마다 협력하며 이루어 가야 한다. 이 필요성을 아는 것이 한국 지역교회들에 던져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꿈의교회는 안산에 있는 모든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을 충분히 섬기고도 남을 재정과 인적 자원들을 보내 달라고 매주 열방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내국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변두리나 가장자리에 선 외국인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VIP 자리에 앉아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꿈의교회 다문화 사역은 디아스포라적 리더십을 꿈꾸며 함께 자라가고 있다. 환대를 베풀 뿐 아니라, 환대받을 수 있는 교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의교회 다문화 사역의 비전이며, 이것이 안산에 꿈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임을 믿고 이 소망을 나눈다.

MISSION
KOREA
2021 RALLY

**ON다
대회**



ON-AIR, ON-Line, ON 지역!
선교한국 2021 랠리가 ON다!
선교적 도전과 집회, 15개 선교 이슈 주제강의 (Missional Mentoring)
Global Mission Trends와 선교미래이슈

2021. 8. 2.Mon~ 5.Thu 2pm~9pm
온라인 진행(ZOOM) 6월~7월 15개 선교 이슈 주제강의 3회

회비 43,000원
신청기간 5월 24일부터 선교한국 2021 랠리 홈페이지에서 가능
www.mk2021.or.kr

문의 02-563-2468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74, 3층 선교한국 | info@missionkorea.org | 카카오톡 ID : missionkor

주관 
MISSION KOREA

스리랑카 근로자 선교 공동체 매일교회 '살롬하우스' 이야기

이창호 강도사
살롬하우스

“귀국한 근로자들이 스리랑카 영적 부흥

돌파구 되길

스리랑카 근로자 선교 공동체인 매일교회 '살롬하우스'는 8년 전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설립되었다. 매일교회 문용만 담임목사는 과거 미국 유학 생활 중 낯선 이국땅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온 이주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전을 품게 됐다. 그러던 차에 매일교회와 가까운 분당 사랑과은혜교회에서 이주민을 위한 선교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인도라 여기고 권사 5명을 보내 훈련받게 했다.

그렇게 매일교회 김해연, 최덕숙, 박춘금, 이경선, 이현미 권사가 MMTS 9기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마침 MMTS 같은 조에서 훈련받은 사랑과은혜교회 김승용 장로가 운영하는 회사에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김승용 장로는 회사에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매일교회는 사역자들과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살롬하우스가 2013



매일교회 살롬하우스 멤버들은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떠나, 살롬하우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본국에 귀국한 형제들의 가정을 방문해 영적 돌봄을 하고 교제를 나눴다. ©살롬하우스

년 9월 8일 개관예배를 드렸다.

이후 살롬하우스는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고 바자회, 크리켓 대회 등을 통해 스리랑카 형제들의 한국 생활을 돕고 있다. 그리고 스리랑카 형제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동행해 주고, 취업과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발로 뛰며 돕고 있다. 형제들이 쉬는 날에는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일교회의 많은 성도가 살롬하우스를 섬겨 주었고, 지금은 창립멤버인 김해연 권사를 중심으로 최덕숙 권사, 송활 집사, 추인수 집사, 구본진 집사, 김성희 집사, 박용수 집사가 한글학교, 찬양, 반주, 픽업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개관 초기에는 최종혁 목사, 박성연 전도사, 최지훈 목사가 살롬하우스 주일예배에서 말씀을 전해 주었다. 현재는 국내 스리랑카 근로자 선교를 위해 스리랑카에서 언어를 배우고 온 이창호 강도사가 스리랑카어(싱할라어)로 말씀을 전하며, 주중 형제 2명을 제자훈련 시키고 있다. 현재 살롬하우스를 통해 세례받은 스리랑카 형제는 25명이다.

김해연 권사는 매 주일예배 후에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여 친밀한 식탁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빨리 코로나 상



살롬하우스 개관 1주년 감사예배에서 김해연 매일교회 권사가 인사를 전하고 있다.

황이 좋아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살롬하우스는 국내에서 스리랑카 근로자 사역을 하는 교회들의 연합체인 '스리랑카 근로자 연합선교회'와 함께 스리랑카 현지에서 목회자를 초청하여 '스리랑카 근로자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리랑카로 4차례 단기선교를 떠나 자신의 나라에 귀국한 근로자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귀국 근로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수련회도 계획 중에 있다. 또 스리랑카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본국에 귀국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현지 교회와 연결해 신앙 양육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처음 살롬하우스가 개관할 때는 20~30명의 스리랑카 형제들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20여 명이 등록돼 있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형제는 5명 정도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살롬하우스 사역자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명 한명이 스리랑카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역하고 있다.

한국에는 3만여 명의 스리랑카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스리랑카인이 새롭게 입국하고, 수천 명은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간다. 이들이 스리랑카의 영적 부흥의 돌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서울 속의 작은 필리핀

Part I 상황(Situation) 에피소드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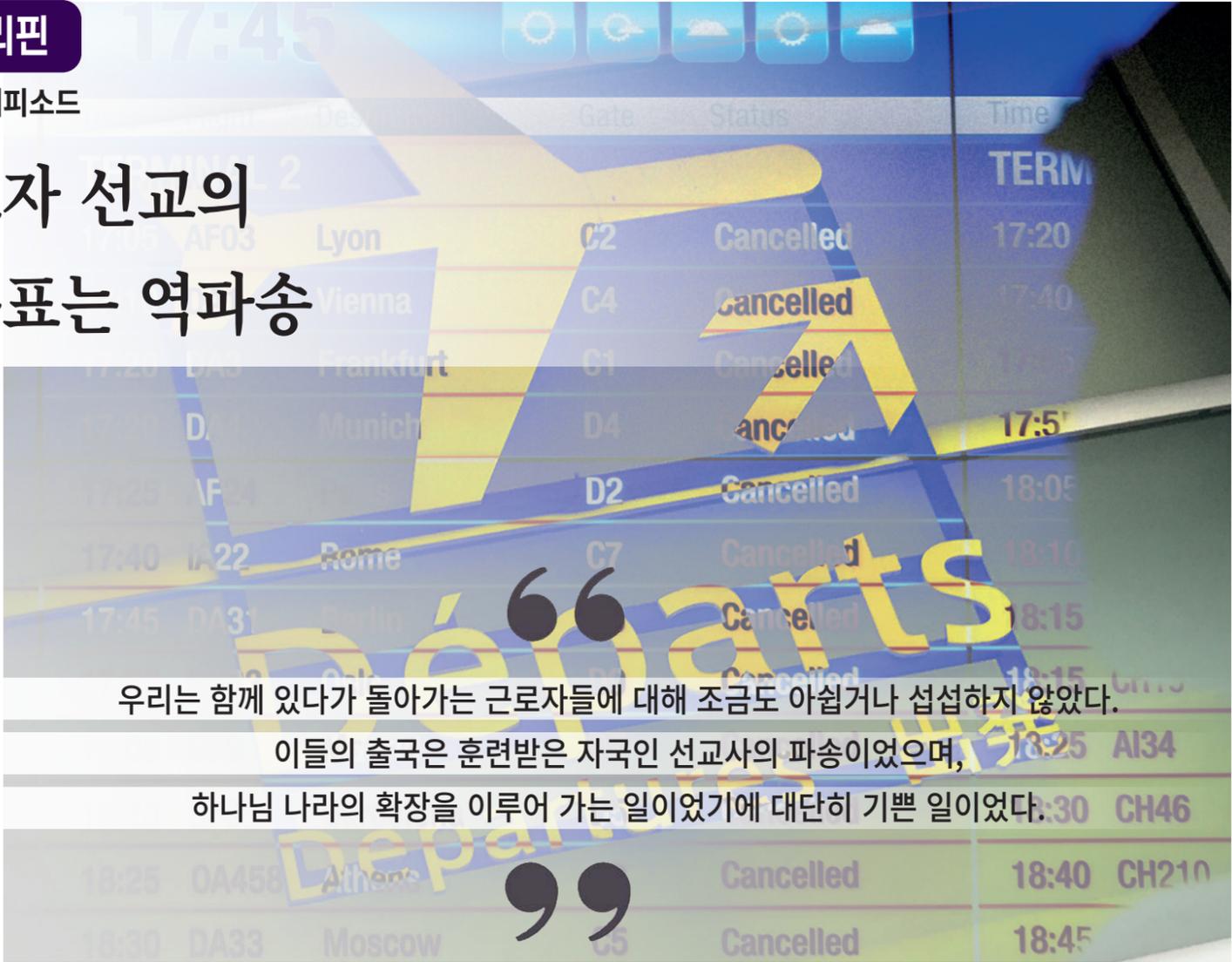
문창선 목사

편집인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한국인 고아들과 의형제를 맺거나 부모 자식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사랑을 이루도록 하였다.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년소녀가장들을 위로하며 유대 관계를 맺도록 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나누거나 드리는 것에 인색했던 필리핀 근로자들이 십일조와 선교헌금은 기본이요, 자기 나라를 위한 구제헌금까지 드렸다.

교회는 어디서든 후원받지 않은 채 자립을 하였다. '카타콤'이라 불린 약 15평의 조그만 지하 예배당에는 많게는 100여 명씩 모여 예배를 드렸다. 주간업무이든 야간업무이든 식사 시간은 무조건 반으로 나눠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했고, 지금도 그 기도의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성가대를 세워 지휘부터 반주까지 본인들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리더



“우리는 함께 있다가 돌아가는 근로자들에 대해 조금도 아쉬거나 섭섭하지 않았다. 이들의 출국은 훈련받은 자국민 선교사의 파송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 일이었기에 대단히 기쁜 일이었다.”

십을 갖춘 7명을 택하여 임원으로 세우고, 교회의 운영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처음엔 시기하는 무리와 자기들은 할 수 없다면서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둘 마음을 같이 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어려움은 늘 생겼다. 사기와 강간으로 인한 수감, 추방, 그리고 마약 소지, 패싸움 등 바람 잘 날이 없었으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듯 그렇게 성장해 갔다.

이쯤 되자 서울 외곽에서도 필리핀 지체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오가는 거리가 꽤 멀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구책이자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7명의 임원을 제자화해서 직접 그 지역으로 파견하여 자국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교회 건물을 빌려서 주일 오후, 비어있는 예배실에서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서울 월계동과 장충동, 경기 군포 지역에 펠로우십이 세워져 필리핀 근로자 출신의 자국민 사역자들에 의해 모든 사역이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필리핀 지체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근로자들이 왔다.

우리는 함께 있다가 돌아가는 근로자들에 대해 조금도 아쉬거나 섭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자화 하여 선교의 인적 자원화를 이루고, 선교지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의 출국은 훈련받은 자국민 선교사의 파송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 일이었기

에 대단히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기대한 대로 승전보만 들려오는 건 아니었다. 귀국한 이들 중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역파송된 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현지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 열매를 점검하기 위하여 순회 선교 사역이 필요했다. 마침 필리핀 근로자 출신의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순회 사역이 가능했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주안대학원대학교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중심의 세계적인 대학
온전한 헌신, 온전한 교육, 온전한 신앙**

주안대학원대학교(JIU)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맞춤 교육을 통해 선교사와 “선교사를 지도하는 선교리더”를 양성하는 초교파 선교전문대학원입니다. 선교학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박사학위(Ph.D)와 석사(MA, Th.M) 학위 과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본교 홈페이지 www.jiu.ac.kr를 참고하시거나
교학처 (032) 446-52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주안대학원대학교)

이주 현상의 가속화가 전 세계 기독교회에 주는 의미

**정착국의 이주민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더 적극 전해야
출발국·정착국 교회는 가고 오는 이주민의 영적 필요 채워야**

본지에서 매월 시리즈로 실리는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로잔이 세계선교의 한 기동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탁월하게 달려왔느냐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이다. 로잔은 그동안 주요 선교 도전과 기회를 발견해 왔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사들과 국제팀으로 회합하고, 세계 이주민 선교 의제의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모든 부분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설명하였다. 즉, 이 책은 풍부한 자료와 통계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 이주민 선교의 현상을 검토하며, 탄탄한 성경적 및 신학적 이해와 타당한 복음적 대응을 위해 성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실용적인 사례들과 가능성 있는 전략들, 영감을 주는 사례 연구들을 통해 도전과 희망을 주고자 했다.

이 책의 1부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현상학적 실제와 동향’은 1장에서 이주 및 디아스포라의 현상학적 실재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자 레미지오 아마도르(Remigio, Jr., Amador)는 22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중동, 북미에서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섬겼고, 지리학, 환경학, 환경친화적 개발의 분야들에서 자원 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밴쿠버 뉴라이프 얼라이언스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본서에서 이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차원에서 세계화, 디아스포라, 도시화, 다원주의에 관련된 역사적, 현상학적 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이주는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에서 볼 때, 다원주의적인 영향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세계화, 도시화, 대도시의 부상을 가속화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화는 자유 무역, 자본주의, 값싼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국

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인구학적 이동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주의 목적은 다양하다. 사회적 이유 혹은 가정의 이유가 있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민하거나, 해외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고향을 지원하려는 경우가 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핍박과 같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피난하기도 한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흩어짐까지 개인과 민족의 이동에 대한 실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듯하다. 이는 성서신학에서 덜 다루어진 주제이지만, 이 책은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해 주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선교와 이들에 의한 선교를 보면, 전통적인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독특한 기회를 자주 접한다.

저자는 이주 현상의 특징에 따라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로 나누었다. 개인과 가정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국내 이주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

로 이주하는 것은 국제 이주로 정의했다.

다음으로 자발적 이주와 강제적 이주가 다르다. 자발적 이주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든 외부에서 이루어지든 대부분 다른 사회 시설, 더 나은 경제 기회나 주거 환경을 찾아 발생한다. 강제적 이주는 전쟁이나 정치적 소요 사태 때문에 정부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람들이나 노예, 또는 죄수 신분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람들의 이주다. 두 범주가 겹치는 경우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도망가는 난민들의 자발적-강제적 이주로 보았다. 그래서 추출(Push)과 유입(Pull) 요소로 설명을 한다. 도착하여 체류하는 곳의 부요함은 유입요소이며,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피난처에 대한 갈망은 추출요소로 보았다.

인류의 세계적인 이동과 이와 연계된 디아스포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과 문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전 세계의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의 형성 및 폭발적 증가,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의 진화와 발전, 그리고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다원주의적이고 다문화적인 관점과 사고가 증가하는데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국제 이주민과 여타 사람들의 이동은 계속 증가

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이 현상이 세계화와 도시화, 빠른 경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기독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출발국과 수용국, 또는 정착국의 지역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구원론과 선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인구의 증가와 국제 이주의 급증 속에서, 특별히 정착국의 이주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해야 한다. 교회론적 관점에서 볼 때, 출발국과 정착국에 있는 교회들이 동원되고 훈련되어 이민을 가고 오는 모두의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지구 곳곳으로 확산되고 흩어지는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막 13:10)은 분명 우연이 아니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택한 자를 모으시는 사역(막 13:27)의 전주곡이다.

흥미롭게도 이주와 디아스포라 현상은 사무엘 헌팅턴(1993)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새로운 세계에서 인류 분쟁의 주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념이나 경제가 아니다. 인류에 큰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는 지배적인 원인은 문화”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 정치의 가장 큰 분쟁은 서로 다른 문명을 지닌 국가와 집단 간에 발생할 것”이라며 “문명의 충돌이 국제 정치를 지배할 것이다. 문명들 사이의 단층선들이

미래의 분쟁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를 넘나드는 이주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디아스포라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세계화, 도시화, 다원주의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며, 우리 시대의 지배적 세계관을 채색하는 국제 사회, 정치, 경제의 동요와 변화를 이끄는 주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서부 유럽과 전 세계에 확산된 이주민 사태와 이슬람 공포증, 미국과 유럽 내 이주 및 이민 정책의 향방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국제 이주 현상과 디아스포라가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이 현상이 제기하는 교회론적, 선교학적 도전에 대해 교회가 마음은 있으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부여한 거대한 교회론적 사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포스트 모던화, 세계화된 세상의 도시화, 다원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디아스포라와 이주 현상에 대해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동원하고 무장시켜, 교회가 디아스포라와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현상에 의미 있게 관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는가?

사도행전 17장 16~29절은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교훈키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현상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채택하셨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이주민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상명령(마 24:14; 28:17~20)이라는 세계선교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선교적 수단(창 1:28; 9:1; 12:3; 28:14)이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선교 공간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이주민 선교

주님의 대위임령 중 ‘모든 족속’에 방점 둔다면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선교 감당”



발행인 황덕영 목사
ICDM 설립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



이주민 선교의 매력은 선교 공간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새중앙교회는 1990년대 초부터 이주민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교회의 전도와 구심적 선교의 기회가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다만 방점을 ‘가서’에 둔다면 원심적으로 가야 하는 선교지를 염두에 두게 될 것이며, ‘모든 족속’에 둔다면 구심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입니다.

이주민 선교의 매력은 선교 공간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새중앙교회는 1990년대 초부터 이주민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교회의 전도와 구심적 선교의 기회가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같이 단일 민족의 사회에 여러 나라가 모이는 데는 특별한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교계와 선교계 지도자들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잠재적 선교 사역지를 찾아보고 세계선교를 위한 계획과 전략을 짜고, 이를 위한 재정과 해외에서 선교하기 원하는 선교사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선교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재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해서(dangerous)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선교 관련 논의나 기획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선교 사역은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선교에 대한 배타적 사고가 변하면서, 나라 전체에 분포된 디아스포라 이주민에 잠재된 어마어마한 선교 기회를 깨달은 한국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전 세계 곳곳에서 몰려오는 이주민들의 영적, 심리적 필요를 다룰 만한 능력을 성도들이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교회는 이주민 집단의 본질을 이해할 일관된 성경적 선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로, 지역교회는 이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국내 지역교회마다 이주민을 이웃으로 사랑하며 선교하는 일의 소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8월호부터 발행 지면을 24면으로 늘리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Empowerment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이주민 선교 “연

이주민 사역에 모델 되는 안디옥



임종표 선교사

한동대에서 올해 최초로 제정한 ‘크리스천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한 명실상부한 한국 선교계 거목이다. 40년간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를 중심으로 인근 6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국제학교를 세우면서 현지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5,000여 귀국 선교사 그룹을 여러 클러스터로 만들고, 각 클러스터를 연결·운영·조직하는 리더십 세워지길...

팬데믹 이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통계에 따르면 5,000여 명의 선교사가 귀국하였다. 또한, 한국에 체류한 이주민 가운데 50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 2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주민 지형에 형태적 수적 변화가 생긴 이때, 천여 곳의 이주민 선교단체와 귀국 선교사 간의 협력을 이를 기회를 얻었으나, 이주민 선교 연합에 대한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할 정도로 연합이 이루어

주제: 이주민 선교 “연합”을 말한다.

기획특집 온라인 좌담회: 전문가에게 듣는다.

대담: 임종표 선교사, 장재중 회장

진행: 문창선 편집인, 정리: 조흔정 기자

**개인적 커넥션 통해 일상 삶 속에 녹아있는 협력 필요
겸손·진실·단순함 갖고 성령이 인도하는 협력 이뤄야**

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주도하고자 하는 편의 의지와 연합 대상들의 수용성이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 대상의 반목과 갈등의 구조에는 사역 세대, 교단별 색채, 더 나아가 기존 이주민 선교사들과 최근 귀국하여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선교사 간의 신분적 차별성, 오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합을 조화롭게 이를 방법은 없는 걸까? 본지는 지난 7월 24일 케냐 임종표 선교사와 필리핀 유니그룹 장재중 회장과 함께 온라인 좌담회를 통해 그 대안을 찾아보았다.

사회자: 먼저 한인 디아스포라 신분에서 현지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교사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재중 회장(이하 장): 저

는 ‘크리스천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삶과의 간격을 어떻게 좁혀갈 것이며,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를 새로이 만들어 가기보다 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40년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과 비즈니스맨들을 만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하여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업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전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한계와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의 한계는 서로 보완하면서 얼마든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연합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님이 언제나 조심스럽고 스파이처럼 사역하는 현장을 보곤 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파송한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두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능동적으로 협력을 이야기하고, 함께 연합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열린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표 선교사(이하 임): 저는 한국 선교계의 협력의 과정을 세밀하게 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협력 자체를 반대하고 시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닌, 자연스럽게 애써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협력, 이것이 매력적인 협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필드에서 협력이 잘 안 된다며 협력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지만, 전체적인 큰 틀보다도 먼저 개인적인 커넥션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모일 때만 외치는 협력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녹아있는 협력,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단순함이라는 세 가지 성품이 가미된, 성령이 인도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연합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특집] 이주민 선교 “연합”을 말한다.

H.I.S.

그분의(HIS) 백성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소양

**문창선 목사
편집인**

케이프타운의 3차 로잔 대회에서 로잔신학위원회 전 의장 크리스 라이트 박사는 “권력과 명예, 인기와 성공, 그리고 부에 대한 열심적 관심이 세계선교를 위한 선교 연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데

이터 마이닝 팀으로 그 대회의 자리에 있었던 필자는 크리스 라이트의 지적에 큰 도전을 받았다.

특히 크리스 라이트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선교의 연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도 및 교



합”이 가능한가

교회 모델이 절실히 필요

선교사가 국가별·계층별·교회별로 연결하고 정보 나누는 온라인 플랫폼 만들 어지면 보다 효율적 매칭 가능할 것...



사회자: 전세계에 흩어진 한인디아스포라가 750만명 정도로 통계되어지는데, 신앙 공동체 연합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장: 해외에서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형태의 선교단체와 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다 보니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연합하고자 하는 진심을 모임의 각 개인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협력을 이루고 싶은 단체와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해외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이 이주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이주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소유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서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뉘고 스스로의 왕국을 만든다면, 현지 사람들은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이주민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별히 크리스천 이주민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지금 한국에는 두 형태의 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주민과 5,000여 명의 귀국 선교사인데 이주민 선교시대로 선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이때에 선교의 전문가들과 한국 이주민 선교사들 그룹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선교사의 3분의 1 정도가 귀국할 듯한데, 이들 선교사가 들어오면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매우 집단적입니다. 여러 작은 집단이 모여서 대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집

단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누군가가 비전을 가지고 귀국 선교사 그룹을 여러 클러스터로 만들고, 각각의 클러스터 간에 다리를 연결해주는 리더십, 운영하고 조직하는 리더십을 세우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민 공동체들은 들어온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제공해주며,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장: 저는 이주민 사역 단체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과 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국내에 국가별, 계층별, 또는 필요로 하는 교회와 연결하여 복음을 전하고 만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저는 덧붙여 이주민 사역에 모델이 되는 교회 형태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21절을 살펴보면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그 교회에서 바울



장재중 회장

필리핀 전체 해운 물량의 15%를 책임지는 마닐라항 5대 항만운송기업 유니그룹 회장이자, 3곳의 한센인 정착촌을 만들어 한센인들의 정착과 자활을 돕고 있다.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로, 필리핀 사람들조차 외면했던 한센인들을 돌보는 봉사자로 적극적인 크리스천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다.

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질인 예수의 구세주 되심과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 수단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안 보이고 교단이 보이고, 성경적 모습이 없이 교리적 모습이 보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교회와 외형적 건물을 건강한 교회라고 지칭할 수 없을 것입니

다. 필드의 상황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나간다면, 카페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직업 교육을 하며, 이주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이주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주민 선교 시대에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때 연합을 통한 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나타나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회의 겸손함과 진실함, 그리고 단순함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제시했는데 필자는 크게 공감한다. 즉 'HIS(Humility·Integrity·Simplicity)'인데, "우리가 '그분의(HIS)'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세

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이주민 선교에 관련한 연합운동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연합을 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위세 가지 'HIS의 신앙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연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과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주민들에게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연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이주민 선교계는 지난 30년간 이주민 선교에 대해 도전하고, 성도들의 참여 지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 특히 KWMA의 전 사무총장 한정국 목사의 리더십은 늘 연합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합을 위한 선교사역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현재 KWMA는 강대흥 사무총장 취임 후,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에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합을 독려하고 있다. 강 사무총장은 이주민 선교사들과 귀국 선교사들의 연합을 주도하기도 하며, 교단 선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어 이주민 선교의 연합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자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인 한국이주민선교단체

협의회(KIMA)와의 연합의 문을 활짝 열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이주민 선교 연합의 가능성에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이 일로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큰 진보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아시아 이주민 선교 촉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습니다”

창간 축하의 글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기독교 역사에서 19세기의 세계선교는 영국이 이끌었고, 20세기는 미국이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세계선교는 아시아가 주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7%만이 복음화되었지만, 이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가 세계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습니다. 세계선교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선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대륙에서 움직이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8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는 선

교 이니셔티브를 생성하고, 아시아 전역의 선교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네트워크가 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행함으로써 선교단체와 교회가 아시아의 미전도종족 그룹에 도달하는 플랫폼이자 파트너 및 채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 세계선교의 지수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창선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안토니 레옹 박사(Dr. Anthony

Leong, 말레이시아 변호사), 안부 알라간 목사(Dr. Anbu Alagan, 인도), 쿠니토리 치시 목사(Khunitoli Chish, 나가랜드), 마크 에드워드 수드히르 목사(Mark Edward Sudhir, 필리핀) 등으로 구성되었

및 홍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즉, 아시아 각 국가에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선교운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선교 협의를 통해 선교 혁신을 촉진하고,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그룹을

세우고 5개의 비대면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각 선교지역의 자원을 결합하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사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에 아시아 모임을 기반으로 'AEA-디아스포라 선교 이니셔티브'(AEA-Diaspora Mission Initiatives)를 발행하고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선교교육센터(Planting Local Aspect International Churchlike)를 구축하여 아시아 상황에 적합한 원주민 선교 기반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사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의 발행에 즈음하여,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는 선교 정보 및 이주민 선교에 관한 정보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합니다.

아시아 디아스포라 선교로 선교 지수 높이고 아시아 미전도종족에 가는 플랫폼 역할 할 것 한국교회와 선교 정보와 이주민 선교 정보 공유

으며, 현한나 교수(주안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와 레지 사무엘 박사(Dr. Reji Samuel)가 카탈리스트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산하 18개 나라의 코디네이터와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려고 각 대표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는 총체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독교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 기반

위한 선교 이니셔티브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선교 기도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를 연결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의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을 이룰 것입니다.

COVID-19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지만, 2021년에는 20명의 각 나라 코디네이터를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창간 축하의 글

유윤종 교수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장, 구약신학 교수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한 〈디아스포

라신문〉 창간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이주민을 섬길 수 있다는

우리 모두 하늘 본향 향해 가는 순례자이자 이주민 한국 땅의 외국인·이주민은 우리 자신의 다른 모습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방향 제시하고 이루어가길

것은 한국교회가 맡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

가는 순례자이자 이주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외국인 혹은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 자

신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해 교제와 섬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의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땅에 이루어나가길 기원합니다.

TO-PLATE

Together, let's close the gap between producer and plate.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 인터뷰

“성경 가르침대로, 기도하면서 느끼는 대로 묵묵히 이주민 사랑 실천”

조선소 있어 화이트칼라·블루칼라 외국인 근로자 상주
중국·러시아 선교 열매 통해 국내 이주민 사역 열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닐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늘 약자에게 있음을 알려준다. 오래전 근동지역에서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는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또 하나의 약한 대상이 있었다. 바로 나그네들이다. 나그네, 즉 이주민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하다. 원주민들에게 이주민을 사랑하고 환대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율법서를 넘어 룯기를 통해, 그리고 메시아 예수의 구원의 계보에까지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남단의 거제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고현교회이다. 고현교회는 20여년 전 박정곤 담임목사가 부임한 직후부터 지역 내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환대하며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 한족들과 러시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최근 베트남 이주민들

에게까지 사역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이다. 지역교회 안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선교지를 옮겨 놓은 셈이다. 동시에 선교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선교하는 패러다임을 실행하는 것이다. 박정곤 담임목사를 만나 이주민 선교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 어떻게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나.

“거제도는 조선소의 영향으로 화이트칼라 및 블루칼라 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하는 지역이다. 지역사회의 경제 주축에 이주민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쉽게 만나는 땅끝에서 온 이웃들에게 당연히 성도와 교회가 환대하고 영혼 구령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 같은데, 이주민의 신분이었던 적이 있나.

“아니다. 내가 디아스포라 신분인 적은 없지만,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의 신분으로 외롭고 힘든 환경에 있으니 어찌 관심이

없을 수 있겠나.”

▶ 중국과 러시아 이주민들을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고현교회는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해외선교 사역에 왕성히 참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 그 열매가 촉매가 되어, 거제도에 있는 중국 한족들과 러시아 이주민들에게 집중하게 된 것이다. 선교는 교회 앞 주변이든 멀리 선교지이든, 공간의 제한을 넘어 어디든지 가능하다. 수리아 안디옥교회처럼 지역교회가 얼마든지 세계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 중국과 러시아 이주민 사역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이유가 있나.

“당연히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삶의 정서와 문화가 다른데, 이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을 주관하도록 한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이주민들이 직접 전도하고 모임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효하다. 과거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네비우스적인 적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주민 선교도 이주민들이 직접 관장하도록



박정곤 목사는 “이주민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모임 발전시키도록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묵묵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역 열매가 궁금하다.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사역의 시너지가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주민들이 귀국 후 고향에서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중국 및 러시아 현지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늘 벅찬 감동과 흥분으로 가슴이 뻐다. 지역 안에서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 향후 이주민 선교의 계획과 기도 제목은.

“우리는 세 번째로 베트남 이주민 예배를 준비 중이다. 중

국과 러시아 사역의 성공적인 관심이 있지만 자고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준비해 거제도 내 베트남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환대하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

박정곤 목사는 인터뷰 내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이론과 전략을 따로 연구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대로 이주민들을 묵묵히 사랑해 온 박정곤 목사와 고현교회가 맺은 크고 작은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없이 소중한 고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했다.

문창선 편집인
witheman@gmail.com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혜준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영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윤 옥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욱,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욱,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055-637-5513



합덕외국인교회를 찾아가다

잘 준비된 사역자 가정의 ‘연합’으로 세워진 교회

세류성결교회의 전적 지원 가운데 7월 개척, 네팔 이주민과 각국 이주민 가정 자녀 사역 당진 내 51개국 2만 명 이주민 섬기기 위해 지역 이주민 선교교회들과 연합과 협력

최 근 합덕외국인교회를 개척한 김윤래 목사와 김희옥 사모(한국의국인선교회·FAN 파송)는 네팔선교정 참여행 중에 국내 이주민들을 섬기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돌아와, 2019년 포천에서 쉼터사역을 시작하였다. 네팔 이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너무나 행복한 2년의 세월이었다고 한다.

이후 충남 당진시 합덕에서 네팔 이주민들과 여러 국적의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을 요청받고, 포천에서 합덕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마을회관에서 임시 거주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친분을 쌓고,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이주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때 마침 위디선교회(가정교회)가 주관하는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 클래식과 심화과정도 마쳤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당진시 합덕읍 합덕교동에 위치한 상가 3층에서 합덕외국인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세류성결교회의 헌신 위에 개척된 이주민 교회

세류성결교회는 지역의 이주민을 품고 각 민족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해 오던 중, 협력선교사로 2년 정도 함께 한 김윤래 목사·김희옥 사모를 이주민 선교사로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지역민에게 귀감이 되어 온 세류성결교회는 2019년엔 전 재정의 20%를, 작년에는 25%를 구제와 선교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다. 앞으로는 전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세류성결교회는 합덕외국인교회의 창립을 위해 교회 임대 보증금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모두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월 임대료와 사역자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김 선교사 가정의 오직 선교에 집중하도록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교인이 70명이 되지 않는 시골교회가 이처럼 선교와 구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분명한 목회철학과 이를 따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합덕외국인교회에 직접 방문해보니

성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강대상이 눈에 띈다. 작고 수수한 십자가 아래 열두 개의 기둥도 인상적이다. 이 기둥은 열두지파를 통한 열방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김윤래 목사·김희옥 사모가 손수 인테리어를 했다.

2남 3녀의 자녀를 키우며 모아둔 책들로 교회 내 ‘동네 작은도서관’도 만들었다. 주중에는 한글학교와 영어성경학교를 진행하며 고려인 2세 자녀들과 중도입국 자녀들을 향한 사역이 이루어질 예정이

다. 교회 한편에 준비된 구제 물품은 의류부터 생활용품, 가전까지 제법 구색을 갖추었다. 이 구제품들은 합덕 지역 이주자들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합덕 지역의 이주민 현황과 이주민 선교의 확장

합덕은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거점 지역이다. 현재 국내

룸촌 등에 거주한다. 대부분은 미등록 이주자들로서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풀업선 빌라 형태로 형성된 합덕 원룸촌에는 고려인, 네팔인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주한다. 아프리카 세네갈, 우간다, 말리에서 온 미등록 이주자들도 인력사무실을 통해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용근로직으로 일



합덕외국인교회 김윤래 목사와 김희옥 사모 ©임진숙 기자

에 체류하는 8만5천 명이 넘는 고려인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약 1만5천 명이 충남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아산시 신창면과 당진시 합덕읍에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합덕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고려인 이주민들이 원룸촌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공장과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한다. 이들을 위해 합덕러시아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고려인 목회자가 일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합덕에는 네팔 이주민들이 많다. 네팔인들은 E9 비자로 합덕 주변의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며, 역시 원

하고 있다. 태국인 부부도 많은데, 주로 자녀들은 본국에 남겨두고 부부만 한국에 와서 농장 일을 한다. 합덕 지역에는 결혼이주여성도 많이 거주하는데, 베트남 여성과 필리핀 여성이 대부분이다.

지역사회에 계속 증가하는 이주민들을 품기 위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합덕외국인교회는 앞으로 당진외국인교회, 당진시외국인센터, 합덕러시아교회 등과 함께 당진시에 들어와 있는 51개 국가 2만 명의 이주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귀한 이주민 선교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구제실 모습 ©임진숙 기자

이주민에게서 온 편지

미카와 지피

“한국과 아프리카 잇는 꿈, 꿈으로 끝날까요?”



8년 전 한국에 온 탄자니아인 미카와 나이지리아인 지피
한국은 고향 같아, 아프리카인 정체성 갖게 돼

미카(좌)와 지피(우)

미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2018년, 지피는 대구대학교 기계공학과를 2018년 졸업했다. 둘은 20대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프리카인사이트 페이스북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을 사랑하는 탄자니아에서 온 미카,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온 지피라고 해요. 저희 이야기 한 번 귀 기울여 주지 않으실래요? 먼저 저희 두 사람, 소개를 드릴게요!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잘 공감할 수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아요. 꿈꾸며 그려왔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8년 넘게 지내온 저희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면서 주변의 다른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노력과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1년 반 전, 저희가 겪었던 부당하고 힘들었던 이야기와 현재 저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가 되고, 지난 1년 반 동안 취업을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인턴, 취업 교육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

지원했지만, 결국 끝까지 연결된 곳은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이 외국인(아프리카인)에게 워킹비자를 주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필수 조건이 많은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드문 것도 큰 이유예요. 일부 회사는 채용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고, 외국인 취업 규정의 높은 벽 앞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더 배우고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생계를 유지할 대안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브랜딩하고 저희의 음악적 재능을 살려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갔어요.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아프리카인사이트, 유튜버, 교회 등과 협력하며 다양한 콜라보 활동을 했어요. 음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한아프리카재단 같은 단체와 협력하여 토크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결과, 감사하게도 KBS의 '전국트롯체전'에 초청받았어요. 전국트롯체전에서 다양한 한국 참여자와 경진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으로서 트로트를 부르며 한국인들과 경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트로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었기에 트로트 문화

와 발음, 억양, 느낌 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희는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감사하게도 최종 3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트롯체전 출연 이후에는 KBS 아침마당, SBS, JTBC 방송에도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후 길에서 저희를 먼저 알아보시고 사인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너무 기쁘고 동시에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곧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누군가 우리를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E-6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여러 TV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 사건은 저희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전하고,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사람들을 웃고 춤추게 하기 위해 결정했던 TV 출연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저희는 TV 프로그램에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동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

고, 특히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구직비자 만료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새로운 대안과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수없이 두드렸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넘기 어려웠던 취업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난 1년 반 이상 고정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학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에게 한국은 이제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8년 전 한국에 처음 와서 어학당부터 시작해, 이곳에서 대학을 나오고, 20대를 보내며 지내왔기에 아프리카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많은 곳과 문화를 사랑하며, 언제나 마음에 한국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프리카와 한국을 대표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며 살려고 해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삶을 조금 더 이어가며, 특히 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물론 그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 저희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처지예요.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는 한국과 탄자니아, 한국과 나이지리아, 더 나아가 한국과 아프리카가 대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교류 증진과 발전을 통해 협력하는 파트너, 친구, 이웃이 될 수 있도록요. 하지만 그 단계로 나아가기엔 아직 저희는 부족하고, 시간과 기회가 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저희 두 사람이 만들어 가려는 이야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경험~
전세계 K_디아스포라의 Now & Here <아이앤유크저널> 와 보세요~
inuc.net

*아이앤유크저널의 기획사업부는 교회의 각종 디자인 기획/출판/웹디자인/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
gypy227@naver.com



김미선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 학과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모토 아래 기독교대학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지역 사회 기여에 힘을 쏟아 왔다. 이러한 건학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2012년 '국제협력기술과'를 신설하였다.

21세기 선교는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과 다른 방법론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결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에 전통적인 선교 개념으로서 교회와 선교단체, 목회자·선교사와 평신도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 무색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필요들이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들의 역할도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춘 다기능 선교사(multi-player)의 모습이 필요하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음을 볼 때, 21세기 선

전주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

'전문인 직업 선교사' 개념 도입



전주비전대학교 캠퍼스 전경

기술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기독교대학으로서 전주비전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선교의 관점에서 재창조 및 재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도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국제협력기술과는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학과로서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제공을 통해 선교 후보자들이 2년 동안 공부와 선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협력기술과를 통해 선교지역 기술 협력을 기초로 한 효과적인 선교 활동이 가능해지며, 특히 선교사의 단



**선교현장서 다양성과 융통성 갖춘 다기능 선교사 요청
1인 1기술전공 제도 운영,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제공**

교는 지금 다시 길을 묻고 재정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여 전주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는 '전문인 직업 선교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전문인 직업 선교사는 탁월한 영성을 바탕으로 선교현장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들을 말하며, 본과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인재 양성 유형과 교육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타 대학 선교 관련 학과의 차별성은 1인 1기술

인재 양성 유형	학과 교육목표	학과 인재상
영성·인성·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선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영성 함양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지성 함양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삶의 훈련과 인성 함양 선교지 변화와 발전을 이끌 선교지 맞춤 기술 역량 함양 세계선교를 위하여 타문화 이해와 글로벌 소통 역량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선교를 위해 주님께 헌신하고 세상을 섬기는 기독교 인재 전공능력과 실무역량을 함양한 창의적 기독교 전문인 인재 타문화 이해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양한 글로벌 지도자

전공 제도인데, 이는 2년 동안 신학, 성경, 선교 분야 과목 외에 공업, 사회실무, 예체능 각 전공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단기간에 전문 직업 교육

과 선교사 교육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과 영성훈련,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과 영성을 함양하고 선교기관, 선교사 연계 등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교육을 통해

일신분으로 사역이 어려운 창의적 접근지역과 이주민 선교, 중국동포나 새터민 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선교가 더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졸업생 현황
(21년 총 졸업생 202명)

졸업생 중 117명이 현재 중국, 대만, 르완다, 감비아, 몽골,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필리핀, 이집트 등의 나라와 한국에서 선교 사역, 교회 사역, 이주민 사역, 전문인 선교(기술, 직업 선교사), 기독교 NGO 사역 등으로 선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화상영어 스피킹 JD CLASS
초·중·고 대학생, 성인 기초
누구나 가능한 영어SPEAKING TRAINING (1:1 화상영어)

네이버 검색 : 제이디 클래스 (native05.com)
하루 25분, 주3회, 4회, 5회수업 문의 : 010-4616-1913

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CONA
International, Ltd.

NEXTMOV

위 디 국제 선교 회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추천영화 '미션' (The Mission)

누구와 무엇과 손잡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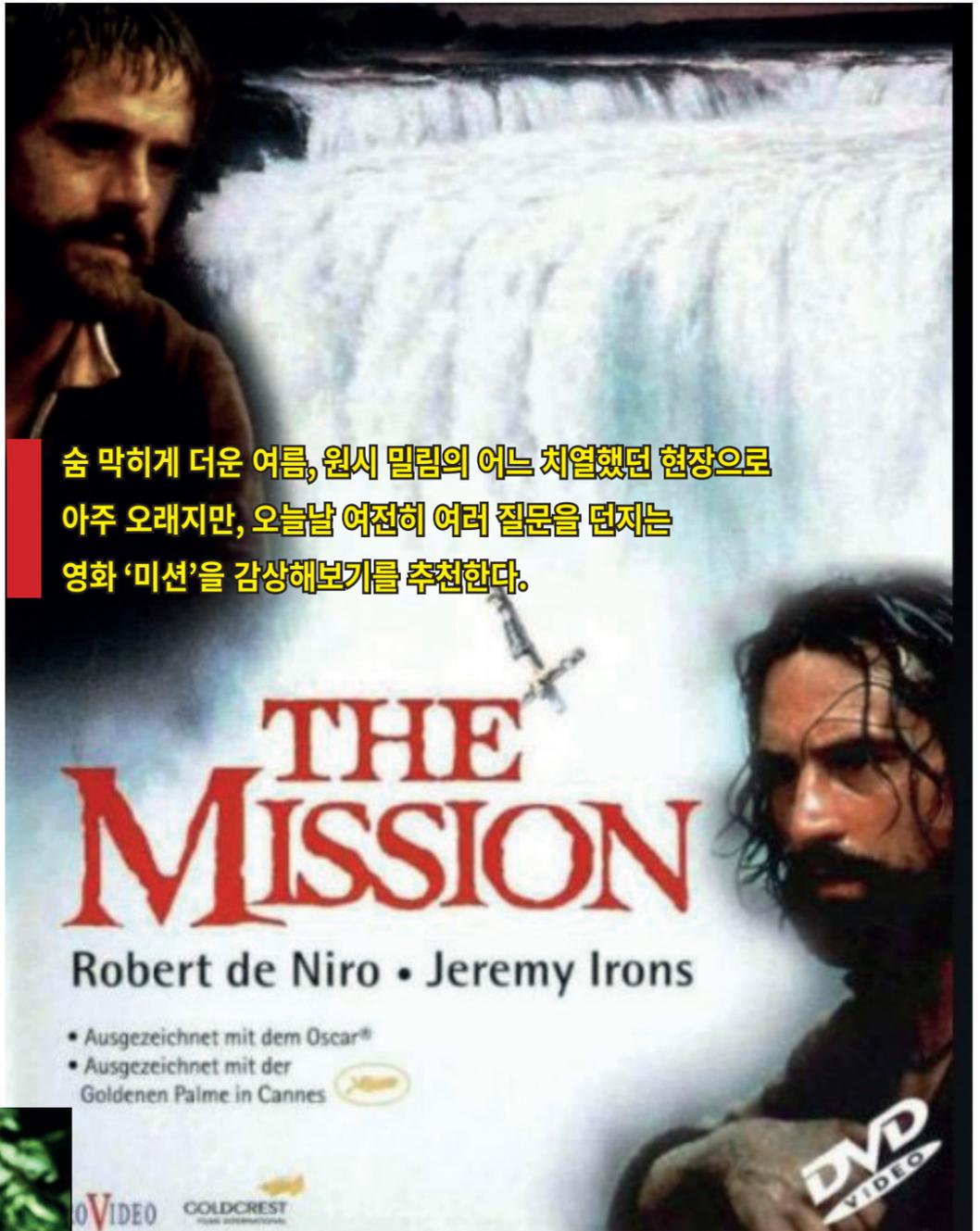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 콘서트가 그의 서거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영화 '미션'을 보지 않은 사람도 원주민 과라니족의 마을로 선교 활동을 온 '가브리엘 신부'의 오보에 연주 장면과 넬라 판타지아의 음률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천상의 세계로 이끄는 이 아름다운 음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가브리엘 신부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려던 원주민들의 눈빛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마주하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뀌며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다. 그렇게 음악은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하여 감동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1986년 상영한 이 영화는 18세기 남미 식민지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엔코미엔다 제도에 의해 스페인 군주는 특정 수의 원주민 사회를 특정인에게 할애하고, 원주민 수장에게는 공물과 노동을 바치는 책임을 부여했다. 감독관인 엔코멘데로들은 원주민들의 신앙을 개종하는 책임과 종족 전쟁과 해적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스페인어 교육 및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졌다. 이

는 예수회 신부들에게 선교의 좋은 기회의 현장이었다.

초창기 예수회 신부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선교했으며, 직접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의료와 음악 방면의 재능을 원주민들에게 가르치며, 원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왔다.

영화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스페인에서 넘어온 세 가지 그룹의 이주민 형태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자(스페인 군대와 귀족), 그리고 약한 원주민들 편에 서서 정복자를 함께 무찌



숨 막히게 더운 여름, 원시 밀림의 어느 치열했던 현장으로 아주 오래지만, 오늘날 여전히 여러 질문을 던지는 영화 '미션'을 감상해보기를 추천한다.

르는 자(로드리고), 마지막으로 총을 쏘며 원주민을 공격하는 스페인 군대 앞에선가를 부르며 비폭력으로 맞서는 자(가브리엘 신부)가 등장한다. 각각의 그룹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그룹이 누구와 어

떻게 연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게 된다.

영화 '미션'은 큰 틀에서 오지에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려 간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주민으로 낮은 곳에 간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누구와 함께 손을 잡는지 연합의 시선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영화이다. 이 땅의 이주민

으로 잠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누구와 손잡고,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걸까? 숨 막히게 더운 여름, 원시 밀림의 어느 치열했던 현장으로 아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여전히 여러 질문을 던지는 영화 '미션'을 감상해보기를 추천한다.

조훈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이상호 원장



예손치과의원

Jesus' hands Dental Clinic

원장 이상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3
유성트윈동관 304호
(서현역 이매촌 출구)

Tel. 031-704-2888 Fax 031-704-2886
Mobil. 010-5704-2088
matw2@hanafos.com

“Since 1997”

성실하게
한결같이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 사고 후 쉼터119에 머물면서 세례받은 태국인 여성 판 씨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판 씨
태국인 여성



손 엑스레이 사진

태국인 여성 판 씨(43)는 2020년 1월,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직전 한국에 들어와 친구의 소개로 금속연마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판 씨는 사고 당시 체류 기간인 90일을 넘겨 미등록 상태

였다. 지역 병원에서는 수술이 힘들다며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고, 결국 판 씨는 당일 봉합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



판 씨가 조혜숙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 ©아시아인마을

았다. 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어가 미숙한 판 씨를 퇴사시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머물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쉼터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입소를 불허하였다.

다행히 판 씨는 아시아인마을 대표 조혜숙 목사와 연결되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아시아인마을의 미등록자 긴급 보호쉼터인 쉼터119에 머물며

다고 한다. 인터뷰 내내 활짝 웃는 판 씨는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혜숙 대표는 “이대로 다친 미등록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갖고 갈 상처가 크다”며 “한국에서 사고를 당한 이주민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예로, 아시아인마을은 2018년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한 태국인 형제의 치료를 도운 적이 있다. 이 형제는 외국인 쉼터에서 2년간 생활했는데, 복음을 듣고 2019년 성탄절에 세례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조혜숙 대표와 꾸준히 연락하고, 시편을 필사하는 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쉼터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게 된 판 씨는 세례도 받았다. 7월에는 손가락을 늘리는 수술을 2차례 받고 회복 중이다. 수술 이후 손가락이 잘 늘어나 집게 기능을 회복했

■ 글로벌이주민자녀학교 개소식

“이주민 자녀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성남시기독교연합회가 1백만 원, 성남시장로연합회가 3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자녀학교 개소식’을 진행했다. 아시아인마을 대표 조혜숙 목사는 7년 전부터 일대일 멘토링 등으로 이주민 자녀들을 섬겨왔다. 조 대표는 인사말에서 “아시아인마을은 권사, 집사의 작은 헌금과 기도로 시작됐다”며 “글로벌이주민자녀학교를 개소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 복음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복지에 더욱 힘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현재 글로벌이주민자녀학교



는 한글, 영어, 중국어, 과학, 코딩, 음악, 미술, 드론 축구, 요가 등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1백만 원, 성남시장로연합회가 3백만 원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2020년 경기도 성남시에 설립된 아시아인마을은 다문화 육아공동체, 이주민자원봉사단, 정서지원상담활동, 이주여성모임 등 공동체를 통해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교육·복지·인권 차원에서 더 나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시아인마을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사업과 공간 마련을 위해 ‘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www.ainma.org/ainma)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국내 이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해 온 비영리 단체 아시아인마을이 7월 4일 ‘법인 이전 및 글로벌이주민

희희양락
최양락 팽현숙의
1호 요양원!

한정합니다~♡

SCALA 스텔라요양원
SILVERSTAY

031-8045-9980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40, 6층(내손동, 캠퍼스프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forms.gle/c7mnQyEGHRrJzVbEA>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 심화과정 3rd

Intercultural Communicator
국제문화교류지도사

2021. 9. 6 ~ 11. 1

- ▶ 강의는 온·오프 병행 진행
- ▶ IC(국제문화교류지도사) 자격증 시험일정 공지 및 참여지원
- ▶ 참여대상 : MMTS 클래식 수료자
- ▶ 수업내용 : 상황화 모델과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단일문화권에서의 다문화사역 / 이주민 환대와 화해사역
이주민들과의 좌담회 / BAM과 통전적 선교
이주민 선교사의 사명과 영성 / 타문화와 타종교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선교와 환대
- ▶ 문의 : 손숙영박사 010-6735-8371, 하소미선교사 010-3335-2449

2021 한인세계선교사대회서 이주민 선교 주목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한동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선교, 성찰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2021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선교의 문이 많이 닫힌 가운데, 국내 이주민과 난민, 유학생 사역 이슈가 주목을 받았다.

14일 오후에는 사역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는데, 대면 참석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국내 외국인·난민·디아스포라 영역에서는 안정호 목사(송우벳사랑베트남교회), 허명호 선교사(다민족사역훈련원 원장), 강성철 선교사(디아스포라신학교 학장)가 각각 발제했으며, 학교(교육)·캠퍼스(대학생) 영역에서는 오영섭 선교사(랜덤마커 미니스트리 대표)가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위한 도시선교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도시와 농어촌에 흩어져 있는 이주민으로 인해 전국이 글로벌 선교현장이 되었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1~2명의 평신도 극소 팀이 3인, 4인의 이주민에게 찾아가 예수 사랑에 기초한 이웃사촌 공동체가 되고,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주민 선교에서도 비대면 사역 개발, 언어권별 이주민 사역 정보 공유, 언어권별 혹은 유형별 전문사역자의 순회 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적인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성찰과 방향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선교한국 ON다 대회 선교 이슈 '이주민 선교' 주제 강의



8월 2일부터 5일까지 선교한국 ON다 대회를 앞두고, 15개의 이슈 주제 중 하나인 '우리 곁에 다가온 이주민, 선교의 시작' 강의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강은 7월 15일 '이주민 선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주제로 임혜림 목사(오륜교회 국제사역부)가, 2강은 7월 22일 '코로나 시대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가, 3강은 7월 29일 '이주민 선교의 5단계'를 주제로 문창선 목사(위디국제선교회)가 전했다.

임혜림 목사는 1강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팬데믹 시대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주민들이 선교의 대상을 넘어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세계 되는 비전을 나누었다. 노규석 목사는 2강에서 세계선교운동의 흐름과 이주민 선교신학, 그리고 국내 다문화 선교 현황에 대해 나누고 세계의 변화에 따른 선교적 교회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문창선 목사는 3강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 성도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인식과 지역교회의 이주민 선교 5단계(FAITH) 사역을 제안하였다.

UPMA, 국내 이주민 선교 현황 연구자료 발행



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는 디지털 선교전략 정보 웹저널 CAS를 1년에 4번 발행하여, 알려지지 않은 생생한 선교현장 정보와 오늘날 현장의 시급한 선교 전략적 필요를 나누고 있다. 이주민 선교 30년이 되는 2021년인 올해는 '국내 이주민 선교'에 집중하여 CAS 26호는 국내 이주민 선교 현황 연구자료를, CAS 27호는 다문화 이주민 선교 현장 리처치를 통해 현장 중심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CAS 27호에 실린 UPMA 대표 정보에 선교사의 글 '이주와 장소, 에스닉타운(ethnic town)'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미전도종족 전문선교방송 UPBS TV에 소개되었다.(유튜브에서 '이주와 장소, 에스닉타운' 검색, 링크 주소(https://youtu.be/G_OTA85vk80), 홈페이지 www.upma21.com)

유튜브 채널 '미션토크'를 통해 만나는 이주민 선교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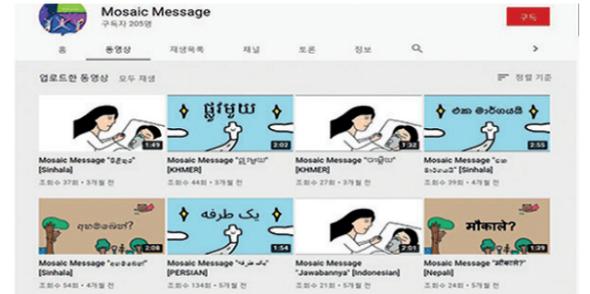


수 많은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을 하고 있는 오영필 선교사(GMP 소속)는 유튜브 채널 '미션토크'를 운영하며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7월 15일 공개된 미션토크 16회에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부산에서 국제이주민센터를 운영하며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OM국제선교회 소속 임호숙 선교사를 소개했다.

임호숙 선교사는 부산대 근처에 자리 잡은 GFC 국제유학생센터를 통해 유학생, 교수, 연구원과 그들의 가족들을 섬기며 한국어 교실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선교는 곧 삶'이라는 자세로 복음을 내재화하여 이 땅에 온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임호숙 선교사의 삶을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P-QoWsYzTS8> 제로필 TV 오영필선교사)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전도용 소책자 '클릭 전도', 다양한 언어의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지속되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은 이 때에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역동성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소책자가 있다. 이광수 선교사(평택 온누리M센터)가 지은 '클릭 전도'가 바로 그것이다. 클릭 전도 시리즈는 총 4권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권은 3분 이내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되어 전도 대상자가 쉽게 정리된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디아스포라 선교와 해외 선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온누리M센터에서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클릭 전도를 '모자이크 메시지(Mosaic Message)'라는 이름의 복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유튜브 채널 'Mosaic Message'에서 볼 수 있는 이 영상들은 현재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덜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 스페인어로 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 다양한 주제로 전도용 영상이 나올 예정이다.

고려인 상담&지원 활동가 온라인 교육



러시아 및 CIS 국가 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동포는 모두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수는 약 10만 명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고려인이 국내로 이주해 올 전망이다. 현재 국내 고려인은 주로 서울, 안산, 인천 연수구, 전라도 광주, 화성, 아산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고려인 동포들의 삶이 다양한 만큼 동포들이 겪는 문제도 다양하다.

안산에 위치한 고려인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에서는 고려인 동포의 국내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입 행정 및 노무, 법률 등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역량점프업-고려인 상담 및 지원 활동가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7월 14일 시작된 이번 교육은 총 10회 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알면 유용한 이주민 정책 및 사역 정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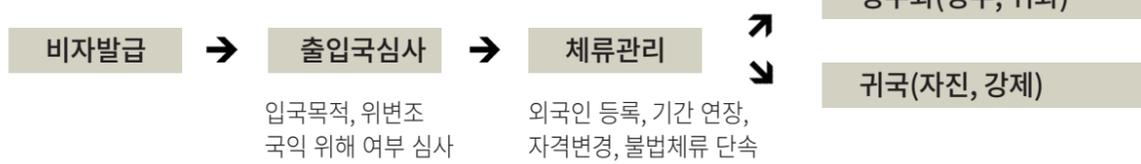
이주민 그들은 누구인가?

□ 이민정책 관련 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이민정책 관련 법령 및 정책 등 정보 제공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법, 재한외국인기본처우법,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 사증)
 - 홈페이지 상단메뉴 '뉴스·공지' / '자료실' / '통계월보' '통계연보' : 외국인 출입국 관련 현황 정보
- 상단메뉴 '고객참여' / '현장투어', 하단메뉴 '사회통합교육'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출입국 관련 업무 민원 사이트 : 각종 민원 안내, 서식, 방문예약 신청 등
-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 : 국번 없이 1345
 - 민원 상담, 구비서류 확인
-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舊. 출입국관리사무소)
 - 담당 업무 :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
 - 명칭 변경 (2018. 5. 10.부터)
 -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청 ※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외국인 체류 관리

- 체류 관리의 수단 : 여권, 비자/체류자격
- 관련 절차



- 체류자격의 기능 : 강제성, 재량성, 예측성, 규범성
- 체류자격의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별표1)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코드	체류자격
A-1	외교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A-2	공무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A-3	협정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B-1	사증면제	D-4	일반연수	E-4	기술지도	F-4	재외동포
B-2	관광/통과	D-5	취재	E-5	전문직업	F-5	영주
C-1	일시취재	D-6	종교	E-6	예술흥행	F-6	결혼이민
		D-7	주재	E-7	특정활동	G-1	기타
C-3	단기방문	D-8	기업투자			H-1	관광취업
C-4	단기취업	D-9	무역경영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D-10	구직	E-10	선원취업		

※ 체류자격 세부분류 (등록 외국인)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연구유학(D-2-5),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단기유학(D-2-8), 교환학생(D-2-F),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기타기관연수(D-4-2), 초중고생(D-4-3), 동포연수(D-4-4), 사설기관연수(D-4-6), 외국어연수(D-4-7), 구직활동(D-10-1), 기술창업활동(D-10-2), 특정활동(E-7-1), 의료코디(E-7-2), 해삼양식(E-7-3), 숙련기능인력(E-7-4),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 관광호텔(E-9-7), 과거추천연수(E-9-95), 과거연수취업(E-9-96), 과거특례고용(E-9-97), 과거합법조치(E-9-98), 내향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선원(E-10-3), 방문동거(F-1-1), 가사보조(F-1-2), 외교동거(F-1-3), 결혼이민가족(F-1-5), 결혼가사정리(F-1-6), 국적신청(F-1-7), 합법출생자녀(F-1-8), 동포배우자등(F-1-9), 동포고령(F-1-10), 방문취업자녀(F-1-11), 거주배우자(F-1-12), 유학생부모(F-1-13), 입양외국인(F-1-14), 우수인재 등의 부모(F-1-15),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외교가사보조(F-1-21), 고액가사보조(F-1-22), 첨단가사보조(F-1-23), 전문가사보조(F-1-24), 4세대이후한시적제동포(F1-25), 미입양된 중도입국 미성년자(F-1-?), 국적신청가족(F-1-71), 영주신청가족(F-1-72), 기타동거(F-1-99),

국민배우자(F-2-1), 국민자녀(F-2-2), 영주가족(F-2-3), 난민(F-2-4), 숙련기능(F-2-6), 점수우수인력(F-2-7), 영주상실(F-2-9), 공무임용(F-2-11), 공익사업투자(F-2-12), 공익은퇴가족(F-2-13), 은퇴이민투자(F-2-14), 점수가족(F-2-71), 부동가족(F-2-81), 기타장기(F-2-99), 장기체류(F-5-1), 국민배우자(F-5-2), 국민자녀(F-5-3), 영주가족(F-5-4), 재외동포2년(F-5-6), 동포국적요건(F-5-7), 재한화교(F-5-8), 첨단박사(F-5-9), 첨단학사(F-5-10), 특정능력(F-5-11), 특별공로(F-5-12), 연금수혜(F-5-13), 방문취업4년(F-5-14), 국내박사(F-5-15), 점수제(F-5-16), 부동산투자(F-5-17), 점수가족(F-5-18), 부동가족(F-5-19), 영주출생(F-5-20), 국민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산재보상(G-1-1), 질병사고(G-1-2), 소송진행(G-1-3), 체임중재(G-1-4), 난민신청(G-1-5), 난민인허(G-1-6), 가족사망(G-1-7), 임신출산(G-1-9), 의료관광(G-1-M), 치료요양(G-1-10), 성매매피해자(G-1-11), 기타(G-1-99), 연고방취(H-2-1), 유학방취(H-2-2), 자진방취(H-2-3), 연수방취(H-2-4), 추첨방취(H-2-5), 변경방취(H-2-6), 만기방취(H-2-7), 기타방취(H-2-99)

* 정보제공: 김래산 선교사(위디국제선교회)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6 국내 이주민 선교의 파트너
디아스포라신문
DIASPORA: NEWS
www.diasporanews.kr

발행인 **황덕영** 목사
편집인 **문창선** 목사

편집국장 **이창배** 목사
gypy227@naver.com

총괄본부장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편집국 수석기자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편집국 기획부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편집국 사회부 **조흔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편집국 교육부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편집국 **이상호** 객원기자
matw2@hanafos.com

온라인 편집팀장 **김혁준** 목사
loke0114@gmail.com

행정/재정팀장 **이진아** 선교사
izina@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번지/ 새중앙교회 세계선교센터 508호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이주민전문보험
특화팀

031-420-6306

막대한 의료비
보험으로
준비
하세요!!



LAUSANNE GLOBAL

로잔 글로벌 디아스포라 서밋 2021

8월 25일 수요일

팬데믹, 이주 그리고 선교

성도들의 고찰이 요구되는 세 주제

- 여러 언어 및 시간대로 진행되는 3시간 생방송 토론 모임
- 전체 프레젠테이션, 지역 토론 및 네트워킹
- 사역의 적용과 진전의 방법 공유
- 팬데믹 상황이 이주 및 디아스포라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사역에 참여하고 촉진하는 방법 나눔

PLENARY SPEAKERS



REV. DR. PATRICK FUNG

General Director,
OMF International



DR. JEHU J. HANCILES

Professor of World Christianity,
Emory University



DR. MIRIAM ADENEY

Professor of World Christian
Studies, Seattle Pacific University

지금 등록하세요

COST: 1인당 미화 15달러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1인당 미화 10 달러

어디에 계시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링크: <https://bit.ly/3fcpFCm>

문의: GDNvirtualsummit@gmail.com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010-7418-0191

